

## 야권재편... 요동치는 호남 민심

야권분열 아쉬움... 文 대표에 비난 목소리 제2의 安風 불까... 동조 탈당 규모에 관심

1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이 이은 정치세력화 선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분열의 길'에 들어서며 따라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당장, 혁신과 통합을 통한 정권 창출의 비전을 요구한 호남 민심에 갈등과 분열의 민낯으로 응답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섬으로 전락하면서까지 헌신적 지지를 보낸 호남 민심과 엄중한 시대적 현실을 외면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정당'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 창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내년 총선이 결국 야권 분열로 인해 필패로 이어지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철저히 패배해야 다음 대선을 앞두고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탈당을 선언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 길 밖에 없었나"라는 아쉬움을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좀 더 '통합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혁신 정당대회 불가 입장을 고수, 안 전 대표의 탈당을 막아내지 못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당의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야권 분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은 야권 재편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을 넘어서 수도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호남 민심의 지지와 동의없는 새정치연

합과 야권 신당 세력 모두 내년 총선에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남 민심의 종착지가 결국 정권 창출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어느 진영이 보다 진정성 있는 집권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문(진 문재인) 주류 세력의 일선 후퇴와 함께 당의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의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호남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야권 신당 세력도 '원 샷 통합' 등 통 큰 그림이 요구되고 있다. 야권 신당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의 줄다리기를 이어간다면 호남 민심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분열은 결국 수도권 호남표심의 분산과 기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직전 모든 야권 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의 용광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일정과 야권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어려운 문제지만 엄중한 시대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거대 여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야권 통합 및 연대를 요구하는 호남 민심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재편은 결국 호남 민심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먼저 헌신과 희생으로 통합의 길을 찾는 진영이 호남 민심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회견장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새정치 탈당 "정권교체 이를 세력 만들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결행했다. 지난해 3월2일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분당 상황에 빠지면서 야권 지형에 대변화가 예고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보답할 것"이라며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안 전 대표는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왔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하며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제 허허벌판에 험험단신 나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리뷰 2015

① 광주U대회 성공 개최

나눔과 배려... 넘치는 멋·맛·흥겨움 세계에 광주의 존재감 뚜렷이 새겨

2015년은 전 세계에 '빛고을 광주'의 존재감을 뚜렷이 남긴 한 해였다. 지난 7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는 국내외에서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전 세계에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170개국 2만여명(운영진 포함)의 전세계 대학생들은 대회 기간 중 즐거움과 흥겨움의 남도의 멋과 맛을 한껏 즐겼고, 넘쳐나는 시민들의 정(情)에 흠뻑 취했다.

U대회가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참여가 있었다. 지역민들의 애환심과 자부심, 공동체 의식이 더욱 빛나는 대회였다.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팔과 아이티 등의 선수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이어지면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세계화하는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15 하계 광주U대회 리듬체조 개인 종목에서 3관왕에 오른 손연재.

특히 광주 U대회는 수년째 지속된 지역경제 침체와 '호남 소외'라는 지역적 차별로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에게 자긍심과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메르스'로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아울러 대회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독특한 남도문화 자산 활용을 극대화해 '아시아문화수도'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 계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승화했다는 점은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절약대회'의 원칙에 따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다. 경기시설 신축을 최소화하고 재건축을 통한 선수촌 건립, 재정규모 최소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대회를 실현했다는 성과를 남겼다.

시설 재건축 재정투입 최소화 저비용·고효율·친환경 대회 대규모 국제행사 새 모델로

반면, 전국적으로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는 컸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 및 지출이 1조6167억원인 반면 생산 효과는 3조5275억원, 1조159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광주 U대회는 지역은 물론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제행사의 새로운 '모델'이 됐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6 광주일보 신춘문에 내일 접수 마감

총선 4개월 앞으로... 내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4면

'작심 365' 목수 공방 연 박상일 ▶7면



'그림편지' 박종석의 백두산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Jeollanam-do**

**beyond farm**  
농부가 만듭니다

## 차 산업을 선도하는 전남 농촌은 다릅니다

- 1차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합니다!
- 2차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듭니다!
- 3차 인성교육·체험·치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6차산업 문의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 061) 280-3995, 3998

**전라남도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  
JeollaNamdo